

복고주의(復古主義)의 두 얼굴(1)

Restoration with Two Faces(1)

박영호 / 의전 건축사사무소

by Park Young-Ho

새로운 세기, 새 천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문득 이 시점의 화두로 떠오른다. 내일도 그저 오늘 같은 하루다.

해묵은 분쟁으로 얼룩진 오늘의 현실을 지켜보며, 애써 장미빛 미래에 대한 꿈을 접어 둔다. 간절한 소망, 복고 열원은 쉽사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다가 사무쳐 한이 된다면, 이들을 덮어 둔 채 그 무엇을 새롭게 맞이 한들 다시 아쉬움만 더할 뿐이라는 생각에서다. 돌이켜 지난 세기를 살펴 보는 기사를 대하노라면, 그 짧지 않은 기간이 복고 열풍에 휩싸여 왔음을 느끼게 된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은 20세기 가장 영향력이 컸던 인물 후보로 아돌프 히틀러와 마하트마 간디를 지목한다. 전자는 지구상에 유혈 참극을 일으킨데 대해서, 후자는 선(善)의 힘에 의한 영향력을 이유로 삼고 있다. 공교롭게도 필자의 눈에는 그들의 행위가 복고적이었던 점에서 양자 유사점으로 주목하게 되며, 그 내용과 결과에 있어서의 판이함을 인상깊게 받아들이게 된다. 한편은 폭력에 의해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복고 열망이며, 다른 한편은 불복종 비폭력을 통하여 주권을 회복하려는 복고 열망이다. 결과에 있어서는 실패와 성공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타임이 한세기를 걸고 이들을 지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그간의 수많은 분쟁과 저항이 그러했으며, 금세기가 다해 가는 90년대 후반은 이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와 보이지 않을 만큼 복고 열풍이 붓물처럼 터져 나오면서 이해를 돕는다. 서문을 쓰는 요 며칠 사이에도, 해묵은 카슈미르 분쟁 재연이 관심을 돌우며, 체첸과 동티모르에 관한 기사가 이들을 거든다. 이런 이유에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마당에서 한번쯤 복고주의를 짚고 넘어갈 필요를 느끼게 된다. 반성과 그에 대한 대비를 통하여서, 또한 다음 세기를 맞는 마음의 준비로도 부담을 덜 것이다. 물론 분쟁을 관찰하는 것이 본 의도는 아니다. 전쟁과 같이 갖은 힘을 쏟아 붓는 바탕에는 그 사회 지도력이 결집되어 있을 것이며, 그 영향을 받게 되는 다른 부분의 복고 현상을 관찰하는데 도움을 주리라는 생각에서다. 건축물을 아무리 들여다 보아도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렇게 되게한 영향력이 건축 밖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있게 한 밖으로는 눈을 돌려 영향력을 행사한 대상을 주목하게

된다. 그 영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의 복고 열원은 지엽말단에 이르도록 한 걸 같으리라는 생각에서다. 표면적 차이는 있을 지언정 뜻하는 바 의지는 공통되리라는 기대를 거는 것이다. 만약에 음흉한 속내나 치회가 있었다면 이를 통하여 그들에게 낯 간지러운 자초지종을 알려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된다.

이 글이 의도하는 바는 사회적 담론의 형성에 있다. 여러 사람들의 견해가 쌓이고 쌓여 다음 세기를 이끌어갈 밑거름의 담론이 된다면 새 천년의 원단이 한갓 12월 그믐 다음날일 뿐이라는 생각을 거두어 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필자주>

1. 복고주의 개관
2. 복고주의에 대한 일반 관념
3. 복고주의 유형
4. 복고주의 양면성, 숨은 의미 찾기
5. 역사상의 복고주의
6. 복고주의 반성과 진로

1. 복고주의 개관

• 과거를 회상함

가끔 우리는 자신의 지나온 날을 되돌아 보게 된다. 그리운 고향산천, 부모형제, 이웃의 얼굴들이며, 자라온 곳과 거기에 얽힌 즐거움, 때로는 아픈 추억들마저도 잠시나마 위안을 안겨준다. 옛날을 돌이켜 보며 그리워하고 안타까워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까.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 수만리 먼 길을 회귀하는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노라면, 인간마저도 본능에 관한 한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오히려 뚜렷한 사연과 기억을 가진 인간의 심정을 감안한다면, 지워 없앨 수 없는 사무친 것들에야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지난 날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돌봐준 이에 대한 감사와 보답하고픈 마음이나, 반대로 자신을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에 대한 미움과, 더 나아가서 증오심, 복수심 등 지난 일이 오매불망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며 잠재의식의 까마득한 저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억이라는 것의 끈질긴 과거집착성을 대하여 새삼 놀라게 된다.

현재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쟁들을 보노라면, 인간 기억의 과거 집착성이 얼마나 괴팍한가에 대한 실제 모습을 대하게 된다. 보스니아 내전에서 코소보 분쟁으로 이어지는 비극, 쿠르드족의 아픔, 평화협정에 이르기까지의 북아일랜드의 기나긴 분쟁,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많은 내전 등, 20세기 후반의 여러 비극은 인간 기억의 복고성이 자아낸 안타까운 예로 보여진다.

인간이 과거를 돌아다보지 않는다면 그런 비극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사람다움을 지닐 수 있었던가는 오히려 뒤를 돌아다 봄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 6·25때 포로가 되었던 국군이 북한을 탈출해서 가족의 품에 다시 안긴 감동적인 상봉 소식은 인간 기억이 얼마나 끈질기게 과거에 집착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으로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오히려 인간에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억의 임무가 신비해 보일 뿐이다. 이러한 돌이켜 보는 복고적 습성으로 말미암아, 정신대 할머니의 일본에 대한 배상 요구가 가능하며, 나치의 만행에 대한 전범 처단의 정당성이 선다.

지난 일에 대해 반성하며, 기왕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전기도 여기에서 비롯됨을 보게 된다. 과거에 대한 회상은 좋은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무엇이 복고인가

그러면 복고란 무엇인가. 단순히 과거를 회상

하는 것만으로 복고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에 가깝다 하여 복고적 또는 의고적(擬古的)과 같은 수식어는 붙을지언정, 복고(Restoration, Revival, Archaic, Renaissance)의 글자 의미와 같이, 옛것을 재생하거나 옛체제로 돌아간다는 의미에는 미치지 못한다.

'재생' 이라든가 '부활' 이라든가 '회귀' 라는 의미는 실제로 있어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게 된다. 시간과 세월을 돌이켜 과거로 거슬러 갈 수 없으며, 존재하지 않는 바로 그것을 가져올 수도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고의 현실적 의미는 오히려 의고적이라는 말이 뜻에 부합되어 보인다. -토인비는 Archaic이라는 용어를 쓴다.

지니간 과거, 이미 죽어 없어진 것은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기억 속에서나, 기록으로, 유물로, 때로는 이상화된 환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현재에 유사하게 재현하게 되는 것이 복고의 실재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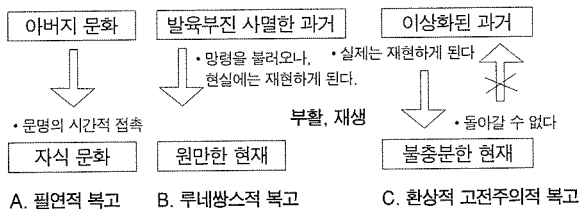
이리하여 영토의 복원, 권위의 복원, 제도의 복원, 인간 관계, 생태환경, 문예의 복원 등 수많은 복원이 복고의 의미로 다시 태어남을 보게 된다. 구체적 형태로 만들어져 복고로 태어나는 데는 과거에 대한 애착이 깊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왜 과거에 애착을 갖는지에 대한 여러 이유가 산견되는 터라, 차츰 밝혀져야 될 것이나, 바라는 아쉬움과 아쉬움에 처한 현재의 어려움에서 일차적인 이유를 캔다. 어려움에 처해서, 지난 시절 잘 나가던 때를 생각함과 같은 이치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수많은 복고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진다.

토인비(Arnold J. Toynbee)는 저서 '역사의 연구'를 통하여 복고주의에 대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다.

"그것이 아주 옛날이면 옛날일수록, 아주 애석하게 여기는 데다가, 더욱 이상화되어 보이는 과거의 보다 행복했던 상태중, 어느 한 군데로 복귀하려는 기도."라는 정의를 대한다.¹⁾

불란서 혁명후,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등장한 복고주의 경향이나, 1차대전후 베르사이유 체제하에서 독일이 보여준 것이나, 만네리즘시대를 벗어나려는 복고주의 징후 등은 그러한 예다. 근래 우리 사회에서 영웅 신드롬이 인디는 일부 보도는 IMF체제의 어려움 가운데서 서민의 의식을 읽어 내려는 눈치 빠름으로 비쳐진다.

1) A. J. Toynbee: A study of history, vol6(Oxford. 1973) p. 49. 현재의 처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Archaism이라는 표현을 쓴다.



해설1: 과거와 현재의 관계. (토인비는 복고에서 르네상스를 구분해 설명한다.)²⁾
 *어떤 경우든, 과거로부터 쫓겨온다.

• 회상이 현재에 작용함

‘드리나강의 다리’에서 “이 모든 것은 동짓달
 춥던 그날, 드리나강에서 소년이 느끼던 육체적 고통에 집약되
 였고, 생활양식과 종교와 이름과 조국을 바꾸어도 이것만은 그
 를 떠나지 않는다. 체내에 남은 고통의 자취만은 완전히 가시는
 일이 없었다. 가시기는 커녕 세월과 더불어 늙어 감에 따라 고통
 은 더욱 자주 나타났다. 훗날 인생살이에서 얻은 병이나 고통과
 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다. 그 고통의 어느 순간, 그는 생각했다.
 —가파른 둑과 그 사이를 흐르는 드리나강에 다리를 놓아, 보스
 니아 동방, 다시 말하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과 살고 있는 고장
 (오스만 제국)을 영원히 연결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
 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해에 이 메메드파샤(오스만제국의 총리)
 의 명령 하에 드리나강에 다리를 놓는 대역사가 시작되었다.”³⁾

이 글은 이보안드리치의 ‘드리나강의 다리’
 (1961년 노벨문학상 수상)의 한 대목이다. — 이 소설은 오스만
 트르쿠 점령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까지, 보스니아, 세르
 비아 주민들이 겪는 수난사로 유고의 400년 근대사이다. 그 이
 후 코소보 분쟁에까지 이어지는 현대사를 눈여겨 보며, 복고주
 의 역사를 관찰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보여져 인용한다.

점령에 대한 대가로 피의 공물이 되어, 오스만
 제국에 끌려간 세르비아 소년의 이야기다. 장성하여 침략국 오
 스만 제국의 총리가 된 후 끌려가던 때의 드리나강에서의 쓰라
 린 고통을 생각하며 그곳에 다리를 놓게 되었다는 사연이다.

과거지사에 대한 회상이 그로써 끝나지 않고
 현실로써 뭔가를 만들어 낸다. 어린 시절 망태기에 갇혀, 차거
 운 겨울 강을 건너야 했던 그 자리에는 망태기도 나룻배도 아
 닌, 엄청난 규모의 돌다리로 다시 태어난다.

흡사, 어린 시절 소 판 돈을 가지고 가솔했던

	메메드파샤	정 주 영
과거회상	동짓날 추운 겨울 망태기에 실려 끌려가던 뼈아픈 추억	가난에 찌들린 살림에서 소판돈을 가지고 기출하던 아픈 추억
복고, 재생	망태기, 나룻배 → 돌다리	1마리 소 → 1천 마리의 소
내재된 의미	이스탄불에서 보스니아까지 동서교통로, 정복자 통치 루트	금강산 관광, 그 이상의 시너지

해설2: 우리는 복고의 결과로서 그 행위가 지닌 융통성과 내재된 다른 의미도 주목해야 한다.

가슴아픈 추억이, 오랜 세월이 흐른 후, 1천 마리의 소떼를 물
 고 고향을 찾게끔한 정주영 스토리와 같은 것이다. 결코 회상이
 생각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져 복고를 감행하고 있음
 을 엿볼 수 있다.

• 과거를 돌아다 봄은 자기애의 표현이다

인간이 자신을 아끼고 존중함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간의 여러 행위가 자기를 아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
 리라는 것도 미루어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본능적 행위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예컨대 밥먹고 숨쉬는 행위가 자기 자
 신을 위하여 무슨 욕심이나 양탈을 부리는 것처럼 생각되지는
 않는 바다. 과거 회상이라는 것도 인간에게 기억이 있는 한, 돌
 아다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어서 생명현상을 두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논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이 본능이라 하더라도
 남을 해쳐 뺏어 먹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때는 말썽이 되는
 것처럼 복고의 대상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체적 행위의 형태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문제는 달라 보인다.

복고의 근저에는 자기애(自己愛)라는 지극히
 당연한 인간 본성이 깔려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자기
 애의 깊이가 어떠하며, 그것을 어떻게 통정(統靜)하느냐에
 따라 남에게 미치는 영향도 달라 보일 것이다. 이 자기애를 어
 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자기애의 집단적인 발로는 인종청소(人種淸掃)
 라는 기행(奇行)으로도 번진다. 히틀러 시대의 인종차별 정책,
 게르만 우월주의에서도 엿볼 수 있었으나, 90년대 보스니아, 코
 소보에서 일어나는 인종청소란, 그 지역 민족 간의 인구비례를
 과거로 되돌려 놓으려는 복고적 태도에서 연유된 것이다.

자기네 사람들이 많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들
 이 벌이는 끔찍한 전쟁으로 비쳐진다. 그 원인이라 생각했던 조야
 한 민족주의(民族主義)장막을 걷어 낸다면 복고주의의 주춧돌
 고 끈질긴 자기애의 원초적 모습을 대하게 된다. 복고는 본능에
 가까워 민족주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증의 자기애의 병을 앓는다.

우리의 서양 클래식에 대한 복고 행위에 대해
 서는 호기심을 일으키거나, 그냥 장사 속으로 이해를 구하는 듯

2) A.J. Toynbee: 앞 책 p.4~5.
 과거와 현재의 만남을, 부자관계의 만남, 복고주의, 르네상스 37자로 나누어 설명한다. 부자관
 계의 만남은 정상적이며 필연적인, 르네상스는 제구실을 할 수 있는 성장한 문명과 먼 옛날에 죽
 은 아버이 망령과의 만남이라 설명한다.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가끔 유해한 요소가 발견됨을 지
 적한다. 복고주의는 과거로 되돌아 가려는 시도로 정의한다. 어떤 경우든 없어진 그것을 가져올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어서, 재현, 복원, 회복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필자는 이들을 함께
 복고의 부류에 넣어 관찰한다. 선입관을 배제하기 쉬워지며, 복고의 보편성을 관찰하기 쉬워진
 다. 아울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복고행위에 대한 그 어떤 관평의 부담을 덜기에도 도움이 된다.
 3) 이보안드리치: 드리나 강 의 다리(청학출판사) p.20.



코소보 피란민들 어디로 가나. (1999. 3. 동아일보)

하여 자기애의 깊이를 논하기 어려울 정도의 애교로 넘겨진다. 그러나 나치 복장의 장난감 인형이나 전범의 이름을 딴 상가 간판 등 특별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반응을 일으킨다. 장난기에, 때로는 하찮아 보이는 것마저 다른 의미가 읽혀질 때가 있다. 일 의원들의 신사(神社)참배를 두고 동양 각국에 반응이 큰 것이나, 신나치주의자나 백인 우월주의자의 등장에 대한 우려도 평행적으로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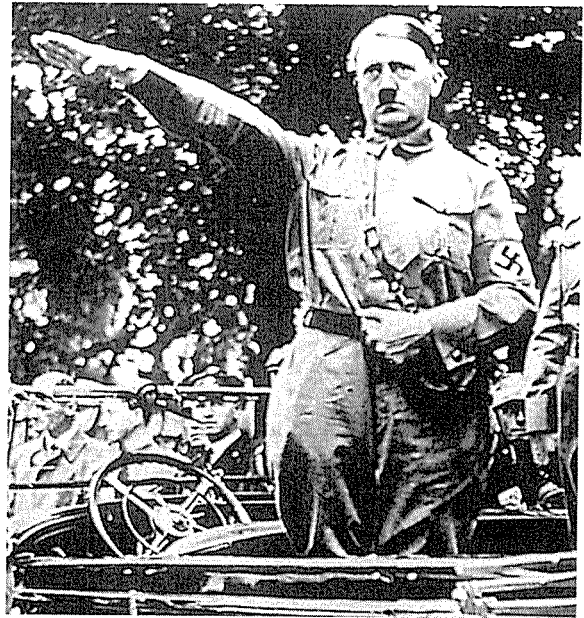
2. 복고주의에 대한 일반관념

• 선입관(先入觀)의 배제

나치 복장의 인형은 어떤가, 히틀러라는 깡패라면 어떤가. 많은 사람들의 느낌이 그렇게 좋을리 없다는 추측을 하게 된다. 인형과 깡패가 그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누구나 잘 아는 터이나, 사람의 감정이 어디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나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지닌 사람이 과연 그 인형에 쉽게 접근, 호감을 갖겠느냐는 것은 일반의 관념이며 정서다. 그러나 관념에 사로 잡혀 일반의 정서에 이끌리어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한다면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의외로 복고주의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일단은 사물을 직시해야 될 필요를 느낀다. 선입관을 제거하면 그만큼 현실을 직시하기 쉬워진다. 이런 것은 나쁘니까 나쁜 것에 대한 복고주의도 마찬가지로 지라든가, 복고주의의 좋지 않은 일면을 두고서 전체에 대한 부정 일반도로 보아 나가는 것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을 거기에 대입해 본다. 히틀러의 복고주의 열망이 온 세상을 대전의 비극으로 몰아 넣었던 것에 반해, 우리는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 영광된 조국을 찾아 부활 재생의 복고 의미를 만끽한다. 복고주의의 두 다른 모습을 대하게 된다.

대체로 일반인들은 복고의 달콤한 부분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다. 달콤한 부분이란 생활 주변에 가깝게 와 친숙해진 것을 말한다. 전통 한옥에서부터 한복이나 민예품, 목



1932년, 대중 앞에 선 히틀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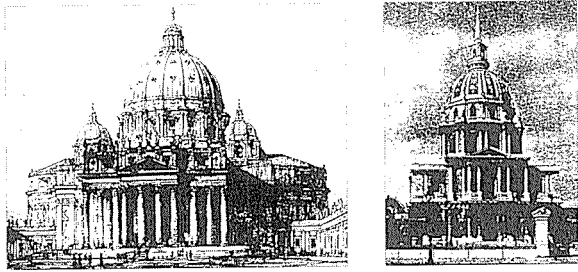
공기물에 이르기까지 비록 그 세가 미미할지언정,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 왔고, 누구나의 가슴 속에 용해되어 있는 것들이다.

복고가 죽어 없어진 것, 이미 화석화되어 있는 것에 활력을 넣어 보려는 작업임에 비해, 이와 같은 것은 전체가 상이한 이상, 그러한 수고로움에서 비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과거로부터 온 것이라 할지라도 현재까지 살아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는 우리의 전통이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있어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다. 온돌방을 두고서 쌀을 주식으로 한다면 복고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이른바 전통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닌 이해와 호감을, 복고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데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 그렇다고 복고가 호감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서양(西洋)복고풍에 대해서도 친근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서양 클래식에 대한 동양인의 복고 행위는 시간적 접촉(接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토인비는 아버지 문화와 자식문화의 관계처럼, 시대적으로 잇대어 내려가는 것을 시간적 접촉이라 부른다.⁴⁾ 그리스, 로마를 아버지 문화로 하여 르네상스, 신고전주의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자식문화 관계처럼 서양 복고에는 혈통(血統)이 있어 보인다.

자기애에 기초하여 자기의 과거를 더듬어 나간다는 복고의 특성과 비교할 때, 남의 과거를 살핀다는 것은 뒷조사에 다름 아니거나 호기심이나 동경심 때문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서양 인형처럼 문화의 공간적(空

4) 토인비:홍사중 역, 역사의 연구, vol.2(동서문화사)p.442



S. Peter, Rome(1506~1626 건립부)과 The Dome of the Invalids, Paris (1680~1691): 이태리 르네상스와 프랑스는 상당한 시간차를 두고 있다. 알프스를 넘어 가는데 걸린 시간으로, 문명의 공간적 접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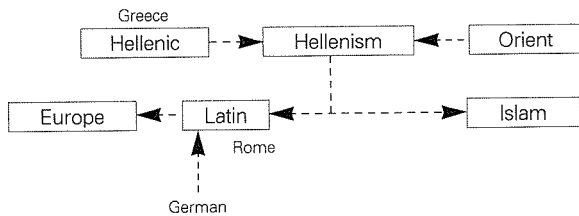
間的) 접촉을 통하여 이미 그들이 이루어 놓은 복고 행위를 흉내내어 가져오는 상행위로 이해된다. 따라서 호불호를 불문하고 이러한 복고 행위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 르네상스에 대한 일반 관념

우리는 르네상스에 대한 호감을 지니고 있다. 근세의 문화 혁명(文化革命)을 가리키는 말인데, 원어(原語)는 재생(再生, Renaitre: 불어)이라는 뜻으로, 고대 미술과 문화의 부흥을 의미한다는 주석은 여러 서양사에 살펴진다.

죽어 없어진 과거의 특정 사실을 현재에 부활 소생 시킨다면 그냥 복고에 그치겠으나, 그것이 성세하여 새로운 문화로 자리를 잡을 때 가히 르네상스적이라 부름과 같이 성공한 복고주의의 대명사처럼 불려진다. 그러나 몇몇 역사서는 이러한 명칭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보이는데, 그 시기의 문명을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견해로 파악된다.⁵⁾

이태리 르네상스 미술 문화에 있어서의 인본주의(人本主義) 경향은 그 바로 앞선 시기의 문화, 예를 들면 고딕 건축에 내재된 그것과는 확실히 다른 것이어서, 이는 그리스 인본주의의 재생이러는데 대해 별 저항을 느끼지 않는다. 또한 그리스, 로마 건축의 고전적 건축 어휘가 사용되고 있음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시기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며, 그것이 르네상스 예술의 전부도 아닐 것이다. 아울러 오래 전에



해설 4: 유럽의 르네상스가 있기까지 문화 전수 계통도.

사멸한 헬레닉 문명이 이 시기에 부활, 재생되었다면 거기에서 물려 받은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창조성과 독자성을 지닌 이태

리 르네상스를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는 것이어서 어휘 사용의 부적절을 뒷받침한다.

토인비도 같은 견해를 보인다. 이 말을 처음 사용한 프랑스 저작자 E.J드래클레를 소개하며, 이 용어가 그 시기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된 데 대하여 의아해 한다. 따라서 그는 이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전 시대에 걸친 부활, 재생의 대명사로 사용한다.⁶⁾

이태리가 그리스, 로마 문화를 재생했다 치더라도, 알프스를 넘어 유럽 제국에 전파된 이른바 공간적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진 주변국의 르네상스에 대하여, 이마저 복고 재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구나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리스, 로마를 고전으로 알고 이를 응용하려는 고전주의 노력은 서양 건축사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다. 기단, 기둥, 주두, 아취돔, 조각상, 부조 등 고전 건축의 어휘에 대한 끊임 없는 재생 노력이 시도 되는데, 유독 르네상스만이 그러한 시도를 했던 것으로 오해 될 수도 있다. 이태리 르네상스 예술의 천재성을 인정하면서, 자칫 복고주의의 전반에 대한 찬사와 무조건적 수용으로 이어져서 불필요한 선입관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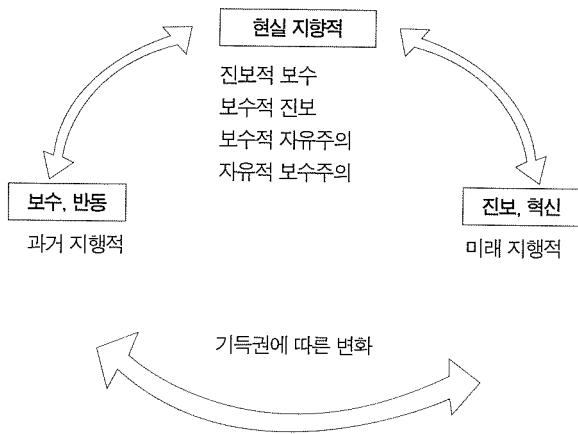
3. 복고주의 유형(類型)

• 자신의 처지를 돕기 위해 과거를 빌어옴

한 집단의 활력을 가늠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그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어느쪽에 더 지향적이나에 따라 하고 있는 일의 활력 여부가 달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개발을 위한 모임이라든가, 그 반대를 위한 저지 모임, 또는 서로 돕기 모임이나, 장래를 준비하는 모임 등은 현재적이며, 미래 지향적(未來指向的)인 움직임으로 비쳐진다. 반면 기념 사업회나 추모회, 동호회, 종친회 등의 모임은 보수적이며, 과거 지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특히 복고적 행위 가운데는 진보적, 혁명적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을뿐더러, 당초의 진보적 태도로부터 힘을 얻으면서 보수적, 민족주의적, 과거 지향적으로 바뀌어가는 추세도 감지할 수 있다. 때로는 대중의 복고적 향수(鄉愁)를 이용하여 호감을 사려하며, 나아가 일체감을 얻어내려는 저의로 비쳐져,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이로써 매우려 한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이들을 상행위로 접어 둘 수도 있겠

5) C.Brinton의 2인. 양병우의 3인역. A History of Civilization, Vol.3. (을유문화사. 82) vol.2.p.2, 3
6) 토인비: 앞책 vol.2.p.439



해설 5. 사람은 자기 처지에 따라 행동, 사고의 변화를 보인다.

나, 역사상 국론 통일을 원하는 지도자가 즐겨 써온 편법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결과에 대해서 좋고 나쁘다는 일괄된 평가는 어려워 보이지만, 리바이벌 문화 상품의 세일즈맨이나, 궁지에 몰린 몇몇 전제적 지도자는 그 이름을 여기에 남긴다. 흘러간 음악, 영화 등을 리바이벌 하여 수입을 올리는 문화 상품 관련자도, 대중의 향수가 무엇인지를 알아 내는데 탁월한 재능을 지닌 복고 귀재들이다. '지중해는 우리의 것'이라는 무솔리니 구호나, 제3제국을 꿈꾸며 로마 제국으로의 복고 향수를 부채질 하던 나치의 행적은 그러한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명분상 영토 회복을 노린 걸프전이나, 포크랜드 전쟁도 그런 점에서 다시 보게 되며, 이들 지도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 대상을 제거하여 얻어지는 복고와 타협함으로써 얻어지는 복고

대상을 제거함으로써 원상 회복하려는 배척적(排斥的), 보복적 형태로 나타나는 복고주의 경향을 보게된다. 영토(領土)와 권위와 명예의 원상 회복을 노린 많은 분쟁과 오염된 문화의 정화를 위한 배척 운동은 여기에 속한다.

썸르비아의 보스니아에서 크로아티아의 관계며, 코소보에서 알바니아와의 관계다. 르완다에서 후트족과 투치족의 보복을 주고 받으며 계속되는 학살 행위도 이러한 부류다.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시절의 영토(領土)와 영광을 회복하려 한다면, 이해 관계가 마주치는 상대방을 만나게 된다. 또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피해를 입혀 한이 맺히게한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는 데도, 당사자가 있기 마련이어서, 언제나 구제제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탈냉전후의 많은 분쟁이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극으로 치닫고 있는데 반해, 복고주의가 빚어낸 해묵은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반기운 소식들은 그나마 위안을 준다. 그것은 제거함으로써 가능한 복고가 아니라, 살려가면서 이루어지는 복고다.

그것은 상생(相生)을 염원하는 이들의 정신적 기반 위에서나 가능한 비극의 탈출구로 보여진다. 이해 당사자의 한편은 복고가 소중한 것이나, 다른 한편은 저주스러운 것이어서 어느 한편을 버림으로써는, 복고주의의 그 즐기찬 끈질김으로 미루어 볼 때, 그 해결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 진전이나, 기나긴 분쟁 끝의 북아일랜드 평화 협정, 교황(敎皇)과 이슬람 지도자의 화해, 만델라의 '진실을 위한 화해 보고서' 등의 소식은 바람에 선 복고주의에 안도의 숨을 안겨준다.

언어 복고운동(復古運動)이나, 외래문화(外來文化) 배척운동도 이와 견주어진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나 생활 문화의 오염된 부분을 제거하고 순수 원형을 찾아 과거로 복귀하는 경우다. 때로는 비운리, 부도덕, 타락한 도시 문명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순수 생활 운동도 다른 의미로 비쳐진다(루소의 주장에 대한 토인비의 우려)⁷⁾

현재도를 폐지하고 구제도를 부활하려는 노력, 이른바 공화제(共和制)를 대신하는 황제의 부활과 같은 시도들은 제거함으로써 얻어지는 복고주의 또다른 모습들이다.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려는 의도에서 당초의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여 70여년을 거슬러 경복궁(景福宮)의 본모습을 회복하려는 행위는 어떠한가를 생각하게 된다.

• 숭배(崇拜)의 대상으로서의 과거와 에피소드로서 과거

존경과 숭배의 대상으로서 과거를 차용해 오는 경우와 비록 존경스럽다 하더라도 추억의 일화(逸話)로 접어 들어 흥미로운 과거지사로 대접하는 경우를 대비한다.

과거 지사는 유익한 교훈을 가지고 있다. 인류가 남긴 지식과 많은 경험을 통하여 직간접의 가르침을 받고 있어서 그 소중함에 쉽게 동의한다. 위대한 조상(祖上)을 모셔와 그 영광된 과거를 빌어 현재의 교훈을 삼아 어려움을 극복하지는 순수한 뜻에서야 더할 나위 없다.

불란서의 잔다크, 영국의 넬슨, 우리의 이순신은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위인으로 손꼽힌다. 옛 성현(聖賢)의 말씀이나, 우리 귀에 익은 교훈적 격언은 여기에 속한다. 그러

7) 토인비:앞책 vol.2,p.73



교황과 이슬람 지도자의 만남 (1999. 3. 12. 동아일보)

나 소견논거(所見論據)로서 기왕의 권위에 의지하여 소신을 펴려 함과 같이 자신의 입지를 넓히려는 의도에서 과거를 차용해 온다면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여 질 것이다. 현재가 어려울수록 그 과거는 더욱 영광스럽게 떠받들어 질 것이라는 암시를 받게 된다. 이 경우 대중의 호응을 얻어 자칫 지도자가 그 정서를 이용할 경우는 앞서의 분류와 같아진다. 동구 공산주의 국가들이 줄줄이 몰락해 갈 무렵, 발굴한 단군릉을 복원하여 반만년을 거슬러 복고를 감행했던데는 어떤 저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600년전, 오스만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쉘르비아 10만 연합군의 결사 항전지를 민족의 성지(聖地)로 떠받드는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600년전의 항전 의지와 결사의 실천을 쉘르비아의 교훈으로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인종 청소라는 '제거함으로써 얻어지는 복고'와 연관 지워볼 때 일관된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 민족의 성지를 부인하려는 주변국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데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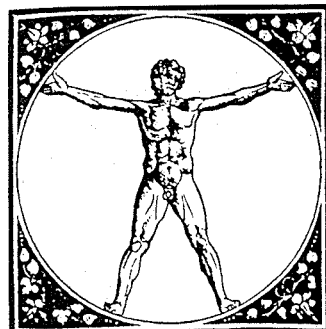
존경과 숭배의 대상으로서의 복고 행위는 건축에서도 보여진다. 르네상스 건축 이론서를 보면, 그 시대의 사람으로 착각될 정도로 자주 오르내리는 인물을 접한다. 비트루비우스(Vitruvius)라는 기원전에 활동하던 로마 제국의 건축가다. 그의 저서, 건축십서(建築十書, De architectura)상의 건축 철학과 지침들이 1천 오백 여년이 지난 후 부활되어, 당대 건축가들의 건축적 사고에 격언처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 시절에 벌써 비트루비우스 아카데미가 창설되었고, 저서는 여러 사람에 의해 출판이 거듭되어 주변 유럽에 퍼져 나간다. 인체(人體)의 조화미(調和美)와 비례(比例)를 중요시 하는 비트루비우스의 생각이,⁸⁾ 르네상스 건축가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는 여기저기서 살피지는 저마다의 '비트루비아노맨' - 최근, 유로화의 이태리축 동전에도 보인다. - 이나 라틴 십자형 교회당 평면 형태를 인간의 신체에 적용시켜 보려는 노력 등에서 실감하게 된다.⁹⁾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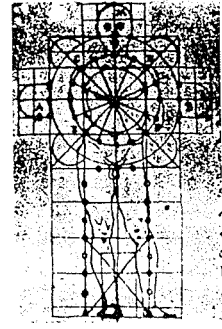
흥미의 대상으로서의 과거는 어떤가. 과거가 위대하고 영광스럽다 하나, 나 또한 못지 않으며, 이 시대가 만만치 않다는 자부심으로 가득차 있는 경우다. 가난해서 배운 것도 없는 어른신이셨지만, 부지런하고 올곧으셨으며, 때로는 실수도 잦아, 어머님숙을 무던히 썩히셨다는, 조출한 추억 같은 것이다. 송덕비(頌德碑)나 동상을 세워 추모할 정도는 아니라 도 잊지는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설 것이다.

마음 먹기에 따라, 과거는 달라 보일 수도 있다. 대단한 분으로 떠받들고도 싶지만, 남의 눈에 자의(恣意)로 비쳐질까봐 다소곳해지는 것인가. 자기애의 통정으로도 비쳐진다. 그러므로 과거지사는 역사의 기억으로 남아 주변에 친근하게 와 있을 뿐이며, 어느 누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떠받들려 지거나, 폄하(貶下)되지도 않고, 저마다에 일화(逸話)가 되어 남는다. 때로는 반면교사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패러디 형태로 코메디화 되어 나타나기도 하며, 인습으로, 미신으로 따돌림 당하던 것들이 복고로 태어나 눈길을 끈다.

햄릿과 돈키호테의 동상을 나란히 대비함과 같이, 방자전, 놀부전으로 둔갑하여 마당놀이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패망 로마 제국의 잔영을 연상케 하는 코린티안 주두에 밑둥이 현대적으로 변형된 기둥 무리 들이나, 머리가 잘려 나간 그리스 조각상들의 재현은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 보여진다. 그것은 하나의 과거지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타이르는 듯 하다.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상 Fra Giocondo판. 비트루비우스(베네치아)



교회평면과 인체의 관계 소모 Francesco di Giorgio

8) R.Wittkower:르네상스 건축의 원리. 이대암 역(대우출판사)p.36-38

9) R.Wittkower:알책 p.39

10) R.Wittkower:알책 p.33

11) 문화일보:99.2.24. 4.19, 동아일보:99.4.19

News Week(99.4.28.한국어판)-2차 세계대전 중, 의사당 진압 작전시의 전경사진(복구전의 모습이 보인다)이 게재되어 있어서, 지붕등 원형을 살필 수 있다.

Banister Fletcher:A History of Architecture(Scribners.1975)p.1192

베를린 천도와 함께 99년 문을 연 독일연방 하원의사당의 새단장이 눈길을 끈다. 1894년 프러시아 제국에 의해 건축된 바로크식 건물이라 한다. 구 제국의회 의사당 (Reichstag Hall)이었으며, 나치 독일의 심장부로서 악역을 치른 곳이기도 하여 관심을 모은다. 서양 건축사는 돔(Dome)의 발달사로 보여질 만큼, 외내관이나, 기능에 있어서 돔의 역할이 중요한 것인데, 그 고전적 바로크 형태의 지붕을 철거하여 유리를 씌워 단장을 마감한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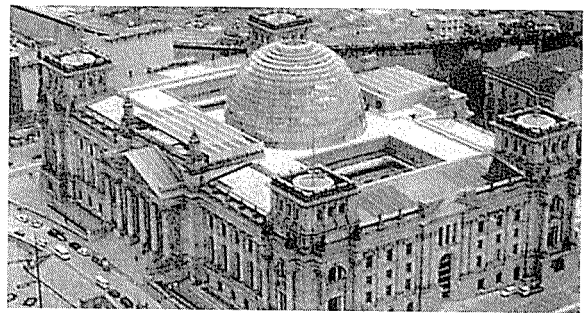
세상에 이름이 높으신 어른의 상투를 잘라 리본을 매드린 격이어서 놀랍기도 하지만, 그 용단을 대하며 숙연해진다. 건축물을 인격체로 대하는 일반의 관념을 고려할 때, 과거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과 건물에 대한 단죄로 보여지기도 하며, 유리의 부박(浮薄)함을 마다 하지 않고 그 투명성을 이미 비로 가져옴에 강한 인상을 받게 된다. 일견, 코메디로 보여질 수도 있겠으나, 과거지사를 에피소드화하여 원상 복구하는 복고주의의 한 유형이다. 특히 포스트 모던 계열에 와서는 조상 우려먹기식 비아냥거림으로 비쳐지기 까지하여 과거를 회롱하는 듯한 방자함에 무척 당황하게 되나, 어딘가 자신감에 차 보임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유형 분류는 모든 복고 형태를 망라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또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 복고행위만을 주제로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지울 수 없으며, 인간의 행위로 나타나는 그 수많은 형태를 묶어 보려 함이 부질없는 생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고의 저변을 흐르는 행위 동기(動機)들은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 있음을 보게 된다. 이를테면, 나와 우리 집단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리하여 무엇을 이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며, 과거로터 얼마나 거리를 두어야 지금의 우리를 부각시킬 수 있을까 등 그 동기들은 유형을 살피는데 주용한 기능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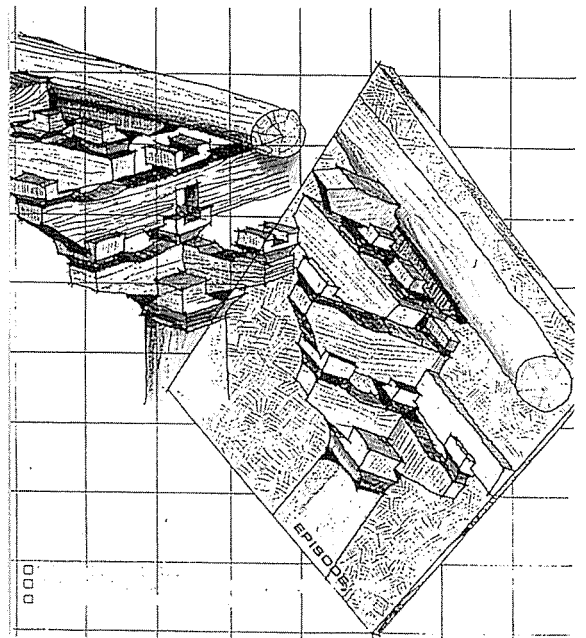
우리는 복고 행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그 행위의 영향을 받는 사람에 의한 반발의 정당성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랜 분쟁의 역사는 민족과 영토, 종교, 국가 건설에 관한 복고 행위가 복합되어 빚어진 결과 들어서 어느 누가 함부로 간여하거나, 의불의를 따지기도 어려울 것이다.

식민 지배하에서 피지배자의 반발이 한쪽에서는 영웅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테러리스트로 불려짐과 같은 경우며, 조상의 얼을 계승, 구현하다는 의도의 조형 행위가 다른 한편으로는 창의력이 부족한 디자이너로 비쳐짐과 같은 이치다.

복고 행위는 하나의 유형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두세개로 복합되어 연속되어 보이는데, 예를 들면 존경의



독일 연방 하원의사당(유리 돔으로 새롭게 단장됨. (99. 4. 19 동아일보)



과거에 대한 이해. 에피소드화함으로써 접근한다(필자 디자인, '건축과 환경 표지에서') (1985. 8.)

대상으로 과거를 가져와서 차츰 자기의 입지를 넓히는데 이용하더니 마침내 의도하던 복고를 완성하게 된다는 단계적 스토리와 같은 것이다.

그밖에 생태 환경의 복원, 문화 유산의 복원처럼 보존을 위하여 후세에 남겨 주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복고를 대한다. 학문 연구로써 고고학, 역사학, 전통 연구, 계승 등은 같은 줄기이며, 순수 목적이 손상되지 않는 한 여기서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상의 복고행위의 유형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자신의 처지를 돕기 위하여 과거를 가져오는 경우
- 대상을 제거함으로써 얻어지는 복고
- 대상과 타협함으로써 얻어지는복고
- 존경의 대상으로 과거를 가져오는 경우
- 에피소드로서 과거를 가져오는 경우
- 보전의 대상으로 과거를 가져오는 경우